

# 西厓 柳成龍의 『楚辭』 受容의 美意識

申斗煥\*

## 目 次

1. 문제의 제기
2. 서애의 시대적 배경과 『楚辭』에 대한 인식
3. 서애의 『楚辭』 수용 양상과 그 문학적 경향
4. 결론

## 1. 문제의 제기

세계의 문학사를 비추어 볼 때,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읽지 않고 서양 문학의 원형을 이해할 수 없듯이 동아시아 한문학을 연구하면서 『詩經』과 『楚辭』를 읽지 않고 한시의 원형을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의 옛 선현들도 『詩經』과 『楚辭』를 중요시하여 경전에 버금갈 정도로 탐독했다.

서애 유성룡의 글을 읽어가다 보면 굴원도 나오고, 『離騷』도 나온다. 그리고 시를 읽다 보면 『楚辭』의 향기가 풍겨나는 시구가 자주 발견된다. 서애는 『楚辭』를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읽었을까? 얼마나 어떻게 읽었기에 『楚辭』의 시어를 다듬어서 시로 오묘하게 정감을 표출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한국 한문학 연구의 중요한 문제의 제기이다.

서애는 『楚辭』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많았다. 서애를 비롯한 조선의 문인들은 어려서부터 『楚辭』를 읽었다. 서애는 글자를 알면서부터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시를 짓기 시작하여 성장하면서 시를 위주로 공부하고, 과거도 시로써 평가하고, 친구간의 교류도 시로써 하였으며 관각생활의 인생 굽이굽이를 시로써 표현했다.

조선의 선비들은 평생을 시로써 씨름하며 시를 생활화하다가 죽을 때까지 시를 짓고 죽는다. 선비들의 문집에 시가 없는 문집은 거의 없다. 이처럼 시를 사랑한 민족이 또 있을까? 조선은 시의 나라이다.

서애도 시를 무척 사랑하고 생활화 했던 사람이다. 그만큼 문학을 사랑했으며 문학과 관련된 책들을 수없이 읽었다. 그 속에 분명 『詩經』과 『楚辭』가 들어 있었을 것이다.

서애의 『楚辭』에 대한 관심은 한국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연구이며 이것은 서애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서애는 그의 스승 퇴계가 그랬듯이 주희의 『楚辭集註』를 중심으로 『楚辭』를 이해하였고, 『楚辭』의 주석서들을 대부분 섭렵하고 『楚辭』 전편에 대하여 주석까지 완벽하게 통달한 것 같다. 서애의 시가에 나타나는 『楚辭』의 수용은 「離騷」를 비롯한 「九章」, 「九歌」 등 그 수용의 폭이 넓고 깊다.

서애는 약 800여수의 시를 지은 유가시인의 전범이자, 퇴계의 우뚝한 제자로서 경세가이자 조선 도학의 전범이었다. 서애와 같은 유학자의 『楚辭』 수용의 방향은 어떠했을까? 한국 유학의 큰 봉우리였던 서애의 『楚辭』 수용양상을 고찰해 보는 것은 우리 한문학의 바람직한 이해를 위하여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서애에 대한 연구는 철학·문학·정치·국방 등 다방면에서 다채롭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sup>1)</sup> 그러나 서애의 『楚辭』 수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1) 김광순(1979); 김호중(1994); 금장태(1995); 조정기(1984); 김시황(1994), (1995); 조민경(2005); 강성준(2005); 신두환(2007), (2010).

본고에서는 서애의 『楚辭』 수용의 미의식을 고찰하여 한국한문학사의 지평을 넓히며 더 나아가 서애를 동아시아와 세계문학 속에 우뚝한 유가 문학가로서 그 위상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 2. 서애의 시대적 배경과 『楚辭』에 대한 인식

난세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전설을 만든다. 서애는 위대한 문인이자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경륜가였으며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다.

서애 유성룡(1542~1607)은 경북 의성 점곡 사촌에서 태어났고, 자는 而見, 호는 西厓, 혹은 雲巖이며 시호는 文忠, 본관은 豊山이다. 군수를 지낸 公緯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황해도관찰사 仲郢이며 어머니는 진사 金光粹의 딸이다. 그의 호는 “낙동강 서쪽 언덕[西厓]에 서당을 지으려 하다가 터가 좁아서 결정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스스로 서애로 호를 삼았다. 그 후에 그 언덕을 翔鳳臺라 이름하였다.”<sup>2)</sup>라고 한다.

서애는 젊었을 때 총명하고 박학하였으니 陶山에서 퇴계 李滉 선생을 처음 뵈었을 때에 이황 선생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자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sup>3)</sup>

서애가 살았던 시대는 한국의 주자학이 최고도로 발달한 시기이고 성리학이 절정에 이른 시기이다. 이 시기는 『楚辭』에 대한 견해도 주자의 『楚辭集註』를 바탕으로 철저히 연구되고 이해되던 시기로, 아마도 우리 역사상 『楚辭』가 가장 정교하게 많이 읽힌 시대였을 것이다.

서애를 비롯한 이 시대의 문인들은 고향의 생애와 『楚辭』의 작품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비평하면서 유교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

2) 『西厓先生文集』, 『西厓年譜』.

3) 『記言』 卷38, 東序記言, 『西厓遺事』.

고, 심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이 시대는 사대사회를 거치면서 훈구 대 사람의 사상적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당파싸움이 극에 달하여 참소와 귀양이 판을 치는 혼란의 시대였다. 특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물고 물리는 참소의 비열함을 몸소 체험하며 그 중심에 있었던 서애에게 『楚辭』는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 왔을 것이다.

『楚辭』는 조선중기 참소당하는 조정의 관료문인들에게 적당한 문학 장르였다. 이 시대를 살았던 관료문인들은 대부분 참소를 경험하였고, 관직과 은거 사이에서 조정과 산수자연에 대한 갈등을 느끼며 살았다.

대표적인 관료 문인이었던 서애가 살았던 시대는 『離騷』를 비롯한 굴원의 『楚辭』가 많이 읽히는 분위기였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전개되었던 그들의 문필생활 속에 『楚辭』가 절실하게 다가왔던 시대였을 것이다.

다음의 시는 퇴계가 65세에 지은 시로, 서애의 『楚辭』 이해 과정에 示唆하는 바가 많은 시이다.

어제 저녁 바람에 늦더위 사라지고	殘暑全銷昨夜風
아침에 서늘한 기운 가슴까지 시원하네.	嫩涼朝起灑襟胸
굴원이 만약 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면	靈均不是能言道
천년 뒤에 어찌하여 朱子께서 느꼈겠는가?	千載如何感晦翁 <sup>4)</sup>

퇴계는 굴원의 행위가 만약 도학의 정신에 어긋난다면 朱熹가 『楚辭』에 그렇게 집중하여 주석을 가할 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희는 굴원을 성리학적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楚辭集註』와 『楚辭辨證』을 지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이 시에서 퇴계는 『楚辭』를 도학적인 입장에서 수용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 서애 역시 퇴계의 제자로서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4)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4, 詩, 「山居四時各四吟 共十六絶」.

것이다. 그러나 서애가 살았던 시대는 혼란의 시대로 퇴계가 살았던 시대와는 달랐다. 따라서 『楚辭』에 대한 이해의 방향도 조금은 달랐을 것이다. 서애는 『楚辭』를 원망의 테마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시는 원망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원망은 군자의 일이 아니니 그래도 性情의 올바름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기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그 뜻이 깊으니 천박한 견식으로서는 미칠 수 없다. 대저 사람이 사람 된 소이는 다만 부자·군신·부부·형제·붕우가 서로 서로 친애하는 사이에 惻隱·忠厚한 생각이 녹아 관통하고 두루 흘러 마치 초목이 생기를 머금고 있는 것과 같은 데 있다. 설혹 불행하게도 틈이 생겨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신하는 임금에게 버림받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형제가 서로 기뻐하지 않으며 붕우가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그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스스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여 탄식하는 것도, 인정이 반드시 이르는 바요, 천리의 당연한 바이다. 만약 돌이킬 생각도 없이 저를 저고, 나는 나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근심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至親이 변화하여 길거리 사람이 되어 인도가 끊어질 것이니 어찌 사람의 성정이겠는가. 이는 곧 佛·老의 학문이지 성인의 가르침이 아니다. 오직 맹자는 이 뜻을 알았기 때문에 越人이 활을 당겨 나를 쏘는 경우와 자기의 형이 활을 당겨 나를 쏘는 경우를 비유하여 公孫丑의 의혹을 깨우쳤으니 참으로 좋은 비유이다. 그러나 원망하면서도 하늘의 법칙에 지나쳐 忿恨에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亂이다. 오직 시의 말은 온유하고 둔후하여 스스로 그 마음의 지성을 다할 뿐이고, 激發하여 지나치게 심한 말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시를 귀하게 여겨 원망할 수 있다.” 屈原의 「離騷經」·「九歌」·「九章」 등의篇도 시의 본질을 받았지만 삶을 버리고 못에 뛰어들어 죽은 일은 심하였다. 그러나 세상에서 스스로 임금과 부모를 끊고, 발끈하여 자기 마음에 기뻐함과 슬퍼함을 더하지 않는 자와는 함께 비교해서 논할 수 없다. 그러므로 朱子是 “굴원의 잘못은 지나친 忠에 있다.”라 하고, 그의 文詞를 논함에는 또한 “變風의 말류로 치달았다.”라고 말하였으니 아마 이 때문인가?<sup>5)</sup>

5) 『西厓先生文集』卷15, 雜著, 「詩教說」. “或問於余曰, 詩可以怨, 怨非君子之事, 猶可見性情之正耶? 曰 其意深矣, 非淺見可到. 夫人之所以爲人者, 只在於父子君

『論語』『陽貨』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詩를 배우지 아니하느냐? 詩는 흥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무리를 지을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 가까이서 아버이를 섬기며 멀리는 인군을 섬기고, 조수와 초목의 이름에 대하여 많이 알 수 있다.”<sup>6)</sup>라고 하였다.

주희는 이 장에 주석을 가하면서 ‘시를 배우는 법은 이 장에서 다 말했다.[學詩之法此章盡之]’라고 하였다. 그리고 원망에 대해 ‘원망하되 성내지 않는다.[怨而不怒]’라고 하여 그 원망[怨]의 미의식에 대해 주석을 가하고 있다. 원망의 시는 정치·사회를 풍자할 수 있는 시를 말한다. 그는 또 ‘인륜의 도리는 詩에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人倫之道 詩無不備]’라고 하여<sup>7)</sup> 공자의 시론 ‘興·觀·群·怨’을 성정미학에서 사회미학으로 지평을 넓혀서 보충하고 있다.

서에는 공자의 詩觀인 ‘興·觀·群·怨’을 가지고 유가적인 인륜도덕의 교화를 추구하는 詩教를 설명하고 있다. 서에는 ‘시는 원망할 수 있다.[可以怨]’를 가지고 논하면서 “굴원의 『楚辭』『離騷』와 『九歌』-(東皇太一·雲中君·湘君·湘夫人·大司命·少司命·東君·河伯·山鬼·國殤·禮魂), 『九章』-(惜誦·涉江·哀郢·抽思·懷沙·思美人·惜往日·橘頌·悲回風) 등도 『論語』『陽貨』의 ‘可以怨’의 본지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

臣夫婦兄弟朋友相親相愛之間，而惻怛忠厚之意，融貫周流，如草木之有生意。如或不幸而有所間隔，子不得於父，臣不得於君，婦不得於夫，兄弟不相悅，朋友不相得，則其所以哀痛傷悼，不能自安於心，而發之咨嗟歎息者，其亦人情之所必至，而天理之所當然。若無顧念，而乃曰彼爲彼，我爲我，怱然而已，則是至親化爲路人，而人道息矣，豈人之性情乎。此乃佛老之學，非聖人之教。惟孟子識此意，故以越人其兄彎弓爲譬，而曉公孫丑之惑，眞善喻也。然怨而過乎天則，至於忿恨則亂。惟詩之言，溫柔敦厚，自盡乎其心之至誠，而無激發過甚之辭。故聖人貴之，謂可以怨。若屈子離騷·九歌·九章等篇，亦詩之遺意，而至於捐生赴淵則甚矣。然視世之自絕於君親，而悻悻然不加欣憾於其心者，不可同日而論也。故朱子謂屈子之過，過於忠，而其論文詞，亦曰馳騁於變風之末流，其以是歟？”

6) 『論語』『陽貨』. “子曰 小子，何莫學夫詩？詩可以興，可以觀，可以群，可以怨。邇之事父，遠之事君，多識於鳥獸草木之名。”

7) 『論語』『陽貨』. 註釋 참고.

였다. 서애는 원망을 ‘원망하되 어지럽지 않아야 한다.[怨而不亂]’는 사마천의 입장을 견지하며 『楚辭』를 원망의 테마로써 인식하고 있었다.

서애는 원망이 일어나는 근원을 이야기 하면서 ‘신하가 임금에게 버림 받는 것’을 유추해 내고 “굴원이 삶을 버리고 못에 뛰어들어 죽은 일은 심하였다. 그러나 세상에서 스스로 임금과 부모를 끊고, 발끈하여 자기 마음에 기뻐함과 슬퍼함을 더하지 않는 자와는 함께 비교해서 논할 수 없다.”라고 하여 서애가 살았던 당대의 난잡한 선비들과는 굴원을 함부로 비교하는 것은 경계하였다. 서애는 결국 원망의 테마를 성정미학보다 정치적인 불합리를 풍자하는 사회미학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서애는 시교의 입장에서 굴원의 고결한 선비정신을 신중하게 수용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희의 『楚辭集注』에 “朱子は ‘굴원의 잘못은 지나친 충에 있다.’ 한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유학적으로 비판하며 詩敎의 논리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희는 그 뒤를 이어 그의 文詞를 논함에는, 『楚辭』를 ‘『詩經』 變風의 말류로 치달았다.’고 말하였으니 아마 이 때문인가?”라고 비평하고 있다.

서애는 『楚辭』를 『詩經』 變風의 풍자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인식하고, 박식한 식견과 비평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서애의 『楚辭』에 대한 비평은 그 깊이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었다. 서애는 『楚辭』 전편에 대해 『詩經』과 비교하며 유가의 인륜 도덕적 입장에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變風은 西周가 왕성할 때에는 善政과 美俗이 사방에 두루 퍼지고, 그 歌謠에 드러나는 것도 그 올바른 것을 얻었으나 成王·康王이 죽은 뒤 찬송하는 소리가 무너지고, 임금의 혜택이 고갈되어 變風·變雅가 점차 일어났다. 즉, 國風의 주남·소남 25편을 正風이라 하고, 邶風에서 豳風에 이르는 13나라의 135편을 變風이라 한다. 이것은 결국 정치의 잘못을 원

망하고 비판하는 풍자에 비중을 두고 비평한 것이다. 서에는 주희가 『楚辭』를 변풍의 말류로 치달았다.'라고 한 점에 주목하여 이 논의를 더욱 심화 확대하고 『詩經』의 연장선상에서 『楚辭』를 풍자와 교화를 함의한 『詩經』 變風의 말류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저 도는 중용을 지극한 것으로 삼아 희로애락이 다 天然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지나침과 모자람은 모두 정도가 아니어서 다 中을 잃은 것이니 이 이치는 『中庸』에서 상세히 말하였다. 시의 가르침도 이와 같을 뿐이다. 아, 정밀하도다. 도를 체득한 군자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겠는가.

그러나 이는 한 사람에게 대해서 말한 것이요, 성인의 뜻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만약 詩道의 전체를 논한다면 반드시 성군이 위에 있어서 오류의 도로써 그 표준을 세워 수신에서부터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태평하기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부자·군신·부부·형제·붕우된 자로 하여금 다 그 이치를 터득하여 은택이 천하를 덮어 한 지아비도 제자리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고, 교화가 천하에 행하여져 어떤 일도 바르지 못함이 없게 하여 사람마다 각각 분수에 맞는 願을 얻게 한다. 그래서 한테 섞여서 太和가 되어 화락하고 널리 칭송하는 소리가 일어나고 상서로운 응합이 이르러 마치 『麟趾』가 『關雎』에 응하고, 『騶虞』가 『鵲巢』에 응한 연후에야 바야흐로 시의 가르침이 완전하게 될 것이다.

아, 한 백성이 제자리를 잃으면 왕정의 나뭇을 알 수 있고, 한 여자가 버림을 받으면 인민의 곤란함을 알 수 있다. 천하의 부자·군신·부부·형제·붕우가 서로 원망하는 시가 많아 變風이 일어나 왕도를 돌이킬 수 없었으니 이것을 어찌 쉽게 말하겠는가. 성인은 여기에서 그 느낀 바가 깊었다. 아! 감동적이다.<sup>8)</sup>

8) 『西厓先生文集』卷15, 雜著, 『詩教說』. “大抵道以中庸爲至, 喜怒哀樂, 皆有天然之則, 過不及, 皆非正而均爲失中, 斯理也, 中庸言之詳矣. 詩之教, 亦若此而已. 嗚呼精矣. 非體道之君子, 何以與此. 然此就一人言之. 聖人之意, 不止於此. 若論詩道之全, 則必也聖君在上, 以五倫之道, 建其有極, 由身而家而國而天下, 使天下之爲父子君臣夫婦兄弟朋友. 皆得其理, 澤被天下, 而無一夫之不獲. 化行天下, 而無一事之不正, 人人各得分願. 薰爲太和, 熙熙皞皞, 而頌聲作, 瑞應至, 如麟趾之應關雎, 騶虞之應鵲巢, 然後方爲詩教之全. 嗚呼. 一民失所, 足以知王政之惡, 一

서애는 굴원의 잘못을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비판을 가하며 시에 대해 비평한 성인들의 시정신이 굴원의 초사 상황에 잘 맞아 들어가는 절실한 표현에 감동하고 있다.

주희가 ‘굴원의 잘못은 지나친 충에 있다.’ 말한 것에 주목하여 굴원을 중용의 입장에서 비평하고 있다. 공자의 ‘興·觀·群·怨’ 시의 가르침도 중용을 바탕으로 가르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나친 것과 모자람도 모두 정도가 아니어서 중을 잃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굴원의 『楚辭』도 다 중을 잃은 것에서 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애는 굴원의 『楚辭』를 원망의 테마에 두고 주희가 비평한 『詩經』變風의 말류를 가지고 상세한 비평을 하면서 성인들의 시 비평 정신이 뛰어난데 감동하고 있다. 서애는 이를 유교적인 詩敎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의의가 크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비평하고 있다.

서애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楚辭』 『離騷』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晦菴 朱熹는 만년에 『楚辭』를 주석하였으니 그 뜻이 깊었다. 주자는 스스로 생각해 보니 道는 끝내 행해지지 않고 世道와 인심은 날로 더러운 데로 달음박질하니 간절히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근심하여 잊지 못하는 자기의 성심을 하소연할 데가 없고, 또 평소에 제법 명분과 절도로 자신을 연마 하던 사람도 변천하여 세속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屈原의 文詞에 느끼는 바 있어 천년의 간격에도 知己의 벗이 되어 『離騷經』에서 자기의 뜻을 발휘하였으니 이른바 “식자외는 말할 수 있으나 속인과는 말하기 어렵다.”는 말이 참으로 옳다.

新羅(역자 주: 고려의 오기인 듯함)때, 鄭敍라는 사람이 동래에 귀양 가서 살면서 임금을 사모하여 가사를 지었는데, 『鄭瓜亭曲』이라 하였다. 고려 말에 思菴 柳淑이 운명할 때 시를 지어 읊기를

---

女見棄，足以知人民之困。天下之父子君臣夫婦兄弟朋友，相怨之詩多而變風起，王道不可回，斯豈易言哉。聖人於此，其所感者深矣。噫。”

타향에 객이 되어 머리가 다 희었는데	他鄉作客頭渾白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도 반기는 사람 없네	到處逢人眼不靑
고요히 맑은 밤 달빛은 창에 가득한데	淸夜沉沉滿窓月
한 곡조 비파 소리는 바로 「정과정곡」이라네	琵琶一曲鄭瓜亭

라고 하였다. 그 시의 내용은 비통하고 원망하는 것이다. 陶隱 李崇仁은 다 음과 같이 읊었다.

비파 위에 한 곡조 「정과정곡」 흐르니	琵琶一曲鄭瓜亭
그 메아리 슬퍼 차마 들을 수가 없네	遺響悽然不忍聽
고금을 아울러보니 그 한이 얼마던가	俯仰古今多少恨
주렴 가득 성근 비에 「離騷經」을 읽노라	滿簾疎雨讀騷經 <sup>9)</sup>

서애는 위 인용문에서 굴원의 『楚辭』 「離騷」를 우리 선현들이 지은 한 시와 비교하여 비평했다. 그는 「離騷」를 고려 때의 「정과정곡」과 비교하여 그 원망하고 슬퍼하는 주제가 비슷한 점을 파악하여 비평하고 있다. 서애는 柳淑(1324~1368)이 燕京에서 강릉대군(恭愍王)을 시종하여 4년간 원나라에 있으면서 「정과정곡」의 내용처럼 자기의 고독과 원망을 읊었던 시를 포착하여 그 정황이 「離騷」와 같은 곡조라고 비평하였다. 서애는 더 나아가 도은 이숭인이 「정과정곡」과 「離騷」를 비교하여 읊은 시를 찾아내어 「정과정곡」과 「離騷」가 그 주제 면에서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비교문학 차원에서 비평을 가하였다.

서애는 『초사』 「離騷」에 대한 비평을 고려 의종 때 문인인 瓜亭 鄭敍

9) 『西厓先生文集』 卷15, 雜著, 「離騷」. “朱晦菴晚年, 註『楚辭』, 其意深矣. 盖自度道終不行, 而世道人心, 日趨於汙下, 吾之忠君憂國惓惓不忘之誠, 無可告語, 而平日之稍以名節自礪者, 莫不變遷而從俗. 於是, 有感於屈子之詞, 而隔千載爲知己友, 發揮於離騷, 所謂可與識者道, 難與俗人言者, 眞不誣矣. 新羅時有鄭敍, 謫居東萊, 戀君作歌詞, 號鄭瓜亭曲. 麗末柳思菴淑, 臨命作詩曰, 他鄉作客頭渾白, 到處逢人眼不靑, 淸夜沈沈滿窓月, 琵琶一曲鄭瓜亭, 其詞悽怨. 李陶隱崇仁詩云, 琵琶一曲鄭瓜亭, 遺響悽然不忍聽, 俯仰古今多少恨, 滿簾疎雨讀騷經.”

가 동래 유배 시절에 10구체 향가 형식으로 지은 忠臣戀主之詞 「정과정곡」과 비슷하다고 비평했다.

「정과정곡」에서도 임금이 부르지 않는 것을 괴로워하며 버림받았으나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sup>10)</sup>

『고려사』 악지에 「정과정곡」의 작자 정서는 인종과 동서 간으로서 오랫동안 왕의 총애를 받아왔는데, 의종이 즉위한 뒤 참소를 받아 고향인 동래로 유배되었다. 마치 굴원이 참소를 입고 쫓겨난 것처럼. 이 때 의종은 머지않아 다시 소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오래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이에 거문고를 잡고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서에는 「정과정곡」이 유배지에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절실하고 애달프게 노래한 점을 들어 『초사』 「이소」에 비교하며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후대에 鄭澈의 「思美人曲」·「續美人曲」 같은 忠臣戀主之詞의 원류가 되었다. 鄭澈의 「思美人曲」도 『楚辭』의 「思美人」과 「遠遊」의 정서로 읊은 것이다.

「정과정곡」의 가시는 조선시대 음악이론서인 『악학궤범』 권5의 「鶴蓮化臺處容舞合說」조에 「三眞勻」이라는 명칭으로, 옛 악보인 「大樂後譜」에 진작 1·2·3이라는 명칭으로 실려 있다. 『악학궤범』에 수록된 「정과정곡」 노래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前腔) 내 님물 그리△·와 우니다니  
 (中腔) 山점동새 난 이슥ㅎ·요ㅇ | 다  
 (後腔) 아니시며 거츠르신드·르 아으  
 (附葉) 殘月曉星이 아르·시리ㅇ | 다  
 (大葉) 녀시라도 님은 흥·느디·녀져라 아으  
 (附葉) 벼기더시니 뉘러시니ㅇ | 스가  
 (二葉) 過도 허믄도 千萬 업소ㅇ | 다

10) 『고려사』 권71 樂志 2에 노래의 제작 동기와 이제현의 한역시가 전한다.

(三葉) 口·리헛마리신더

(四葉) ㅅ·리웃븐더 아으

(附葉) 니미 나르·리 흥·마 니즈·시니호 | ㅅ가

(五葉)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피오쇼셔<sup>11)</sup>

내 님을 그리워하며 우웁니다.  
 저 산에 밤새워 우는 접동새처럼.  
 아니웁니다. 거짓입니다. 아!  
 새벽 달과 별은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낮이라도 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라고 우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헛말은 제발 듣지 마소서.  
 너무 억울합니다. 아!  
 임이여 벌써 나를 잊으셨나이까?  
 아! 임이시여, 되돌려 들으시고 사랑해주소서.

이제현은 「정과정곡」을 「小樂府」라 하여 칠언절구의 한시로 다음과 같이 개작했다.

내님을 그리워하며 날마다 우웁니다	憶君無日不霑衣
꼭 봄 산에 밤새워 우는 소쩍새처럼	政似春山蜀子規
옳거니 그르거니 사람들이여 묻지 말라	爲是爲非人莫問
단지 새벽 달과 새벽 별만이 아실 것입니다	只應殘月曉星知

서애는 「정과정곡」을 「離騷」와 부합하는 원망과 통한의 주제가 함의된 노래로 파악하고 우리의 고전시가에 나타나는 원망의 테마로 이를 비평하고 있다.

11) 『국어국문학 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서애는 「정과정곡」과 「離騷」를 주제가 일치하는 문학작품으로 판단하고, 흥미 있게 비교하면서 예술적으로 감상비평을 하고 있다. 서애는 초사를 우리 한시와 비교하여 비평할 정도로 초사에 대한 박식한 견해와 우리 한시를 바라보는 탁월한 안목을 가진 비평가이기도 했다.

서애는 어느 날 우연히 명종의 필적을 발견한 사실을 문집에 적고 있다.

어느 날 나는 비변사에 있었는데, 아전이 여염집에서 작은 병풍을 얻어다가 앉아 있는 벽에 펴놓았다. 이 병풍은 모두 6疊인데, 각각 절구 1首씩 그 위에 쓰여 있었다. 나는 여러 동료들과 함께 돌려 가며 보았는데, 식자들이 모두 명종대왕의 어필임을 알고, 감히 외부에 들 수가 없어서 드디어 궐내에 들이도록 아뢰었다. 그 절구들은 고인들이 역사를 읊은 시로써 모두 전란 후에 옛날을 회상하여 지은 것이니 또한 기이하였다. 그 다섯 번째 시는 다음과 같다.

양왕은 바른 신하 계책을 쓰지 않고	襄王不用直臣籌
남으로 쫓겨오니 태국의 가을이라	放逐南來澤國秋
물결을 좇아 어복에 장사 지내고부터	自向波間葬魚腹
초인은 내 건너는 배만을 비기었을 뿐이네	楚人徒倚濟川舟 <sup>12)</sup>

이 시는 屈原의 이야기이다. 굴원이 楚懷王 때 벼슬하다가 대부의 참소를 당하자 「離騷」를 지어 왕의 感悟를 기대했다. 회왕의 아들 襄王이 즉위하고 長沙에 좌천되자 「漁父辭」 등 諸篇을 지어 뜻을 표시하고, 汨羅水에 빠져 죽었다.<sup>13)</sup> 이것은 서애가 직접 지은 것은 아니지만 서애가 이 사실에 대해 기록한 것은 『楚辭』에 대한 남다른 감동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서애는 “초나라가 쇠하자 굴원의 무리들이 「離騷」 장구들을 지어서 당

12) 『西厓先生文集』 卷15, 雜著, 「記明廟御筆」.

13) 『史記』 卷84, 「屈原列傳」 참조.

시의 정치를 기롱하고 풍자하였던 것을 지금 모두 볼 수 있다. 가사가 너무 통절하고 직설적이어서 왜곡된 것이 없어 천하에 유행하였다. 집집마다 전해지고 사람들이 암송하여 숨기는 바가 없었다. 이로써 고대에는 전혀 언어를 금지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4)</sup>라고 하였다.

서에는 『楚辭』 『離騷』에는 당시의 정치를 풍자하고 기롱하는 뜻이 들어있고, 가사가 너무 통절하고 직설적이라고 비평하며 굴원이 살았던 당시는 조선과 달리 시어를 빌미로 처벌하는 제도가 없는 자유로운 풍자시 대였음을 천명하고 있다.

서에는 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시에 능하지 않다. 그러나 대략 시의 의경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대개 시는 마땅히 淸遠·沖澹해야 하고 의경을 언외에 붙이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렇지 않은 즉 다만 시어가 진부할 뿐이다. 고금의 절구 중에 이백의

동정호를 서쪽은 楚江과 나누어지고	洞庭西望楚江分
물 다한 남쪽하늘 구름마저 보이지 않네	水盡南天不見雲
해지는 長沙에 가을빛이 아득하니	日落長沙秋色遠
어느 곳에서 湘君을 조상할지 모르겠네	不知何處吊湘君

와 같은 시는 진실로 천 만 리에 다하지 않는 뜻이 있다. 우뚝하여 미칠 수가 없다.

그 다음으로 유우석의

봄 강에 달이 뜨니 강둑이 평평하고	春江月出大堤平
---------------------	---------

14) 『西厓先生文集』卷13, 雜著, 『讀史蠡測』. “楚之衰, 屈原之徒, 作爲騷章譏刺時政, 今皆可見. 辭多痛切直致而無委曲, 流行天下. 家傳而人誦之, 無所隱諱. 以此知古之時, 都無言語之禁.”

제방 위의 아가씨 나란히 걸어가네	堤上女郎連袂行
새 노래 다 불러도 기쁨은 보이지 않고	唱盡新詞權不見
붉은 노을 앗은 나무에 자고새가 우네	紅霞映樹鷓鴣鳴

같은 시 또한 절창이다.

이것을 읽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신이한 기운이 차례로 펼쳐져서 큰 제방의 풍경이 마치 눈앞에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사람의 시는 기상이 좁아서 이것을 의론하기가 어렵다.

오직 李胄의 『題忠州自警堂』 시에서

못의 수면은 침침하고 물 기운 어둑한데	池面沈沈水氣昏
밤은 깊어 물고기 뛰니 베개 가에 들린다	夜深魚躑枕邊聞
내일 밤 배 대는 여강에 달이 뜨면	明宵泊近驪江月
죽령이 가로막혀 그대를 못 보겠네	竹嶺橫天不見君

라고 하였다. 시어가 자못 자연스럽고 심원한 운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배워서 미칠 바가 아니다.<sup>15)</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서애는 시를 논하며 ‘淸遠沖澹’의 품격과 미의식을 추구한다. 그리고 시어에 대해 言外에 있는 것을 새롭게 창작하는 것을 중히 여기고, 진부한 시어를 싫어한다. 서애의 시에 있어서 『楚辭』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시어들은 ‘言外之言’·‘像外之像’이다.

서애가 인용한 이백의 시에는 ‘洞庭’·‘楚江’·‘長沙’·‘湘君’ 등의 시어

15) 『西厓先生文集』卷15, 雜著, 『詩意』. “余不能詩. 然略解詩意. 大槩詩當以淸遠沖澹, 寄意於言外爲貴. 不然則只是陳腐語耳. 古今絕句中, 如李白洞庭西望楚江分, 水盡南天不見雲, 日落長沙秋色遠, 不知何處吊湘君, 眞有千萬里不盡之意, 卓乎不可及. 其次如劉禹錫詩, 春江月出大堤平, 堤上女郎連袂行, 唱盡新詞權不見, 紅霞映樹鷓鴣鳴, 亦絕唱. 讀之令人神氣舒暢, 而大堤風景, 若在眼前. 吾東人詩氣象局促, 難可議此. 惟李胄題忠州自警堂詩, 池面沈沈水氣昏, 夜深魚躑枕邊聞, 明宵泊近驪江月, 竹嶺橫天不見君, 語頗自然而有遠致, 非他人學詩所及也.”

가 소재를 이루고, 그 시어의 詩境이 『楚辭』의 발생지역으로 시에서 『楚辭』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특히, 『楚辭』 「九歌-湘君」의 고사가 들어있는 이백의 시를 극찬한 점은 서애가 시작활동에 있어서 『楚辭』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楚辭』 수용의 미의식과도 관련이 깊다.

서애는 유우석의 시에서 보이듯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의 시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애는 우리나라 시들은 기상이 좁다고 평하고, 다만 李胄의 시를 극찬하면서 자연스럽게 심원한 운치가 있는 것을 찬미하였다. 서애의 시도 역시 이 점을 의식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많다. 서애의 이 비평은 결국 서애 자신의 시 창작 경향을 밝히는 시론으로, 여기에서도 『초사』는 서애의 시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서애의 『楚辭』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서애는 『楚辭』의 전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楚辭』를 원망의 테마로 인식하고, 『楚辭』를 바탕으로 시어를 창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애는 『楚辭』를 시어의 예술적 기저로 인식하며 시작활동의 중요한 전범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3. 서애의 『楚辭』 수용 양상과 문학적 경향

서애는 중국의 사적을 읽다가 “왕흠약이 민심을 안정시키고 천하를 복종시킨다는 명목으로 진종을 부추겨 泰山에서 封禪할 것을 권하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天書를 조작하였다. 진종의 공덕을 칭송하는 이 천서로 인해 연호도 大中祥符로 바꾸었다. 그 뒤로 천서를 조작하여 올리는 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구준도 巡檢 朱能이 위조한 천서를 상에게 올려 朝野의 비난을 받았다.”<sup>16)</sup>라는 宋나라 때 재상 寇準이 거짓 天書를 바치는

부분의 글을 읽고 분개하여 『寇準以獻天書, 再入中書』라는 글을 지었다. 서애는 이 글의 말미에

“……초나라 무리 중에 홀로 우뚝 서서 종신토록 변하지 않는 자 천만인에 한 사람 뿐이다. 굴원이 읊기를

난초와 구릿대가 변하여 향기나지 않고	蘭芷變而不芳兮
전초와 혜초는 락풀이 되었네	荃蕙化而爲茅
어찌 전날의 아름다운 향초들이	何昔日之芳草兮
오늘날 바로 이 쭉대머리가 되었나	今直爲此蕭艾也

라고 하였다. 도도한 것이 천하에 모두 이와 같으니 어찌 유독 寇準 한 사람 이리오. 아, 슬프다.<sup>17)</sup>

라고 하였다. 서애는 굴원의 『離騷』 한 부분을 이용하여 송나라 재상 寇準이라는 인물에 대해 비평하고 있다. 서애는 『楚辭』 『離騷』를 완벽하게 이해하였고, 이를 비평에 활용할 정도로 『離騷』에 정통하였다. 서애는 글을 읽다가 문득 寇準과 비교되는 굴원을 떠올리며 ‘초나라 무리 중에 홀로 우뚝 서서 종신토록 변하지 않는 자 천만 인에 한 사람 뿐’이라고 굴원의 청렴결백과 고결한 성품을 극찬했다. 여기에 인용된 『離騷』의 내용은 “전날에는 향초들처럼 유명한 존재들이 알고 보면 훗날에는 흉측한 쭉부쟁이가 되었다.”는 뜻으로 활용되었다. 서애는 이 『離騷』의 상상을 이어서 다음과 같이 시를 읊고 있다.

西厓는 一蠹 鄭汝昌의 南溪書院에 이르러 『南溪精舍十二絶』을 읊었다.

16) 『宋史』 卷281 『寇準列傳』; 卷283 『王欽若列傳』.

17) 『西厓先生別集』 卷4, 雜著, 『寇準以獻天書, 再入中書』. “……獨立於衆楚之中, 而終身不變者, 千萬人一人耳. 屈子曰, 蘭芷變而不芳, 荃蕙化而爲茅, 何昔日之芳草, 今直爲此蕭艾也. 滔滔者天下皆是, 寧獨一寇公哉. 噫.”

남계 강물에 갓끈을 씻고  
남계의 강 구비에 짐을 얹었네

濯纓南溪水  
結宇南溪曲<sup>18)</sup>

서애는 이 시구에서 ‘濯纓’이란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서애를 비롯한 조선의 선비들은 굴원의 『楚辭』 「어부사」를 애호하였다. 특히 다음의 구절을 너무 사랑하였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을 것이고, 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을 것이라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sup>19)</sup>

서애는 일두 정여창의 정자를 시로 형상화하면서 굴원의 「어부사」에서 ‘濯纓’을 啄句하여 창작하였다. 이것은 역시 김종직의 문인인 金駟孫의 號 ‘濯纓’을 의식하여 이 시어를 사용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 구절은 『楚辭』 뿐 아니라 『맹자』에도 실려 있어 『楚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한다. 서애의 다음과 같은 시구도 『楚辭』에서 점화되었다.

맑은 강물 흐르는 곳에 갓끈을 씻고  
고개 길 위험하여 다시 꼭대기를 돈다네

清流到處纓堪濯  
嶺路艱危更轉頭<sup>20)</sup>

서애는 이 시구에서도 굴원의 「어부사」에서 시어를 취해 시를 창작하고 있다. ‘濯纓’은 태평성대의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애는 벼슬길을 위험한 고개 길에 비유하고 있다. 또

18) 『西厓先生文集』 卷1, 詩, 「南溪精舍十二絕」.

19) 『孟子』 「離婁」 上.; 『楚辭』 「漁父」.

20) 『西厓先生文集』 卷1, 詩, 「以大司諫被召 宿聞慶」.

강남을 향하여 어부를 묻지 마라	莫向江南問漁父
안개 낀 저녁 강이 사람을 수심겹게 한다	烟波日暮使人愁 <sup>21)</sup>

서애의 이 시구도 굴원의 「어부사」의 漁父를 의식하여 지은 것으로 『楚辭』의 의경 안으로 들어온다. 서애는 초사의 시어를 적용하여 시를 표현하는 미의식이 있었다.

다음은 「南溪精舍十二絶」에서 서애가 招隱臺를 읊은 것이다.

목을 빼고 흰 구름 저편을 바라보다가	延佇白雲表
쓸쓸히 마음을 같이할 객을 바라노라	悵望同心客
세월은 늦었는데 돌아올까 아니올까	歲晚歸不歸
텅빈 산에는 계수나무 꽃만 떨어지네	山空桂花落 <sup>22)</sup>

‘招隱’이란 이름도 『楚辭』의 「招隱士」에서 온 것이다. 그 가사에

왕손은 유람 길 떠나서서 아직도 아니 오시는데	王孫遊兮不歸
봄풀은 싹이 돌아 어느새 무성해졌구나	春草生兮萋萋

라는 名句가 있으므로 ‘不歸’란 시어도 이 『楚辭』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延佇’이란 시어는 「離騷」의

도를 살핌에 철저히 않음을 후회하며	悔相道之不察兮
머뭇거리며 나 돌아가리라	延佇乎吾將反

에서 취한 것이다. 서애는 『楚辭』를 탐독하였고 감동적으로 향수하였다.

21) 『西厓先生文集』卷1, 詩, 「精舍雜詠」.

22) 『西厓先生文集』卷1, 詩, 「南溪精舍十二絶」.

서애는 자주 『楚辭』에서 啄句하여 시어를 만들었으며 이 시어들에서 새로운 『楚辭』의 향취가 우러나온다.

다음의 시 「古意」는 서애의 『楚辭』 수용의 미의식을 잘 볼 수 있는 시이다.

계수나무는 높은 언덕에 생겨나고	桂樹生高岡
그윽한 난초는 빈 골짜기에 있네	幽蘭在空谷
푸른 줄기는 등나무 넝쿨에 지쳤고	碧榦困藤蘿
꽃술은 가시들 속에 가려졌네	芳心蔽荊棘
내가 가서 그것을 캐어 와서	我欲往採之
멀리서 길이 그리는 마음을 전하고 싶네	遠寄長相憶
왕손은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王孫去不返
초객도 소식이 없으니	楚客無消息
종신토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竟歲人不識
맑은 향기 가득 내뿜고 있네	清香徒馥郁 <sup>23)</sup>

이 시의 ‘桂樹’·‘幽蘭’·‘藤蘿’ 등의 시어들은 거의 『楚辭』에서 이루어졌다. 이 시는 『楚辭』의 향취가 물씬 풍기는 시이다. 이 시 역시 『楚辭』의 「招隱士」 가사의

왕손은 유람 길 떠나셔서 아직도 아니 오시는데,	王孫遊兮不歸
봄풀은 싹이 돌아 어느새 무성해졌구나.	春草生兮萋萋

라는 시구가 인용되고 있다. 서애는 『楚辭』의 시어를 활용하여 『楚辭』의 정황 속에 시상을 빠뜨리고 있다. 이 시 속에 함의된 『초사』의 의경은 전 고의 범위를 넘어 서애의 시에 대한 미의식의 작용으로 볼 수 있겠다.

23) 『西厓先生文集』 卷1, 詩, 「古意」.

강리를 캐어 먼 나그네에게 보내고 싶어      欲採江蘼遺遠客  
 하늘 가득한 비바람에 서루에 기댄다      滿天風雨倚西樓<sup>24)</sup>

이 시 역시 「離騷」의

강리와 벽지로 옷을 해 입고      扈江蘼與辟芷兮  
 가을 난초 엮어서 허리띠를 매었노라      紉秋蘭以爲佩

라는 구절에서 취한 것이다. 서애는 자주 「離騷」에서 시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서애는 병산서원에서 조정으로 돌아가는 학봉 김성일을 전별하며 지은 시에서

넘실 파도에 미인이 노는 것 보이지 않으니      凌波不見美人遊  
 맑은 낙수는 무정하게 홀로 흘러 간다      清洛無情獨自流  
 이를 좇아 강리와 아름다운 팔배나무      從此江蘼與芳杜  
 이슬 향기 단풍잎 모두 쇠잔한 가을이라      露香風葉共殘秋<sup>25)</sup>

라고 하였다. 이 시에서도 「離騷」의 ‘江蘼’란 시어가 『楚辭』의 향기를 발하고 있다. 특히 ‘芳杜’라는 시어는 『楚辭』 「山鬼」의 “산중의 사람이 두악을 따며 바위틈의 물을 마시고 송백의 그늘에서 쉬도다.[山中人兮芳杜若 飲石泉兮蔭松柏]”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서애의 시에는 『楚辭』에서 만들어진 시어가 오묘하게 존재한다.

‘美人’은 『楚辭』에 자주 나오는 시어이다. 『楚辭』 「思美人」은 우리 문학에 끼친 영향이 크다. 정철의 「사미인곡」도 있듯이 우리 한시에는 『楚

24) 『西厓先生文集』 卷1, 詩, 「精舍偶吟」.

25) 『西厓先生文集』 卷1, 詩, 「屏山書院 奉別金鶴峯還朝」.

辭』의 美人이 자주 등장한다. 서애도 자주 『초사』의 미인을 표현하였다. 다음의 시구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산에 부소가 있고 습지에는 용이 있다	山有扶蘇隰有龍
미인의 서로를 기억하며 높은 담에 기대네	美人相憶倚高墉 <sup>26)</sup>

이 시구는 『詩經』 鄭風 「山有扶蘇」에 “산에는 부소가 있고, 습지에는 연꽃이 있거늘 자도는 만나지 못하고, 미친놈만 만난단 말인가. 산에는 우뚝한 소나무가 있고, 습지에는 노니는 용이 있거늘 자충을 만나지 못하고, 마침내 교활한 아이를 만난단 말인가.[山有扶蘇 隰有荷華 不見子都 乃見狂且 山有橋松 隰有游龍 不見子充 乃見校童]”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 시구는 『詩經』의 배경 속에 『楚辭』의 미인을 얹힌 형국이다. 고대 『詩經』과 『楚辭』는 시대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를 공유한다. 또

외로운 상앗대 군산에 그늘지고	孤舟蕩槳君山陰
미인이 보이지 않으니 수심에 쌓인다	美人不見愁人心 <sup>27)</sup>

이 시구에서 ‘孤舟蕩槳’은 굴원의 「어부사」를 바탕으로 다듬은 것이다. ‘君山’은洞庭湖 가운데 있는 산 이름으로, 湘君이 노니는 곳이라 하여 이렇게 이름 한 것이다. 「湘君」 또한 『楚辭』의 편명이다. 이 미인 역시 『楚辭』 속의 미인이 틀림없다. 또

나는 미인의 뜻을 바랐지만은	我願美人意
연뿌리 속의 실로 변화되었다	化作藕中絲 <sup>28)</sup>

26) 『西厓先生文集』 卷1, 詩, 「甲申以觀察使到比安 次壁上韻 仍寄教官年兄」.

27) 『西厓先生文集』 卷1, 詩, 「書山人思瓊詩卷」.

28) 『西厓先生文集』 卷1, 詩, 「秋蓮曲」.

이상의 시구들에서 나타나는 미인은 『楚辭』 속의 미인이다. 마지막구의 ‘藕中絲’는 연뿌리를 절단하여도 그 속에서 나오는 실 같은 진액은 잘라지지 않는다. 즉, 남녀의 외면관계는 끊어졌으나 서로 그리워하는 정은 남아 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서애는 자주 『楚辭』 속의 미인을 시 속에 형상화한다.

서애의 시에는 관료로서 은거를 추구하는 ‘吏隱’의 정취가 있었다.

연잎으로 저고리 가리려고 하는데  
누가 다시 고관 재상을 묻는고

荷衣看欲敝  
誰復問金章<sup>29)</sup>

이 시구에서 ‘荷衣’는 『楚辭』 『離騷』에서 우리 문인들이 자주 인용하는 시구이다. 『楚辭』 『離騷』의 “연꽃 잎새로 옷을 해 입고, 부용으로 아랫바지 만들어 입네.[製芰荷以爲衣兮, 集芙蓉以爲裳]”라고 하였다.

이것은 은자의 옷을 말한다. 서애는 은거의 뜻을 꾀려는데 누가 金章을 찬 고관 재상을 묻느냐고 반문한다. 이 시구도 『楚辭』의 시어가 있어서 시가 더욱 아름다워졌다. 이 시구에는 吏隱의 정취가 강하게 드러난다.

서애의 다음과 같은 시구에는 『楚辭』의 시어가 오묘하게 함의되어 있다.

오호, 어쩔거나 북풍이 서늘하니  
산초를 품고 난초를 잡으니 저절로 아름다워

嗚呼奈何兮北風涼  
懷椒握蘭兮徒自芳<sup>30)</sup>

이 시구의 형식은 영탄성이 함의된 辭賦體이다. 이 시구에서 드러난 ‘椒’·‘蘭’·‘芳’은 『楚辭』의 정취를 물씬 풍기게 한다. 서애는 『楚辭』에서 남방의 향기로운 식물들을 섭렵한다. 위 시는 『離騷』의 “산초나무와 계수나무 섞여 있는데, 어찌 헤초와 어수리만 엮겠는가.[雜申椒與菌桂兮, 豈維紉夫蕙茝]”

29) 『西厓先生文集』 卷1, 詩, 「玉淵書堂戲題」.

30) 『西厓先生文集』 卷1, 詩, 「遠思」.

라는 구를 이용하여 다듬은 것이다. 서애는 주옥같은 『楚辭』 『離騷』의 시어들 차용하여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시구를 만들었다.

난초 잎 혜초 꽃 수심에 늙으려 하고	蘭葉蕙花愁欲老
초강에 안개비 정히 황혼일 때라	楚江烟雨正黃昏 <sup>31)</sup>

남방의 향초들을 망라하면서 시를 엮어가는 서애의 한시는 『楚辭』의 향기로 물들었다.

또 서애의 『擬古十首』중 제 1수는 『楚辭』 『九歌』를 바탕으로 창작한 시이다.

동정호에 나뭇잎 떨어지고	洞庭木葉下
창오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蒼梧雲氣黑
슬피우는 二妃의 눈물이	哀哀二妃淚
소상강 대나무에 곱게 물들이다	灑染湘江竹
눈물의 흔적은 어느때 다하는고	淚痕有時盡
슬픔과 원망은 그침이 없구나	哀怨無時歇
순임금 가마는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鳳駕去不回
인간 세계는 저절로 금석지감에 젖는다	人間自今昔 <sup>32)</sup>

이 시의 ‘洞庭木葉下’ 구절은 屈原이 忠君愛國의 뜻을 붙여서 지은 『楚辭』 『九歌·湘夫人』의 “휘날리는 저 가을바람이여, 동정호에 물결 일고 나뭇잎 떨어지도다.[嫋嫋兮秋風, 洞庭波兮木葉下]”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星湖 李瀾은 이 구절을 사랑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해두고 있다.

31) 『西厓先生文集』 卷1, 詩, 『無題』.

32) 『西厓先生文集』 卷1, 詩, 『擬古 十首』.

屈原의 歌辭에

휘날리는 저 가을바람이여	嫋嫋兮秋風
동정호에 물결 일고 나뭇잎 떨어지도다	洞庭波兮木葉下

라고 하였는데, 이는 천고에 볼 수 없는 비장감개한 것이어서 騷人과 韻士들이 흠모하여 본받고자 해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李白이 시에서 읊기를,

어젯밤 가을바람 천상에서 불어오자	昨夜秋風闔闔來
동정호에 잎이 지니 소인이 슬퍼하네	洞庭木落騷人哀

라고 하였고, 杜甫는 律詩에 읊기를,

한없이 지는 잎은 우수수 떨어지고	無邊落木蕭蕭下
그치지 않는 긴 강은 줄줄 흘러내리네	不盡長江滾滾來

라고 하였는데, 오직 이 두 사람의 글귀가 근사하다. 대개 늦은 가을, 싸늘한 바람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물결은 솟는 그것이 모두 처량한 세계로써, 몇 글자 밖에 되지 않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혼이 녹아나게 한다. 이백은 ‘바람이 불어와서 나무 잎이 진다.’는 것만 말했지만, 강 물결이 그 속에 포함되어 風神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두보는 ‘강물이 줄줄 흘러온다.’는 것만 말했지만, 역시 波浪의 의사를 띠어서 筋骨이 속에 있으니 탄복할 만하다. 그러나 끝내 屈原의 肝膈을 꿰뚫는 애절한 하소연과는 같지 못하니 이는 고금이 다르고 인정이 같지 않은 때문이다.<sup>33)</sup>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楚辭』의 아름다운 시를 언급하고 있다. 서에는 이 시의 서두를 『楚辭』 「九歌·湘夫人」에서 이 시를 인용하여 의경을 일으키고 있다.

33) 『星湖僊說』 卷28, 詩文門, 「屈原歌辭」.

이 시의 ‘蒼梧’는 舜임금이 남쪽으로 巡行하다가 승하하여 묻힌 곳이라고 한다. 『史記』卷1, 『五帝本紀』. 중국 湖南省에 있는 九疑山の 아홉 봉우리가 모두 모양이 같아서 보는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켜 九疑라고 한데서 유래하였다. 九疑山은 곧 蒼梧인데 『楚辭』 『九歌』에는 九疑山으로 나오는데 서애는 이 시에서 ‘蒼梧’라고 하였다.

舜임금이 남방을 순행하다가 죽자, 순임금의 妃인 娥皇과 女英이 울다가 죽었는데, 그 눈물이 소상강 가의 대나무에 뿌려져서 아롱진 점이 되었다고 한다.

『楚辭』 『九歌-湘君』에서, “황제의 딸이 북쪽 물가에 빠지니 아름다운 그 모습 아련히 나를 슬프게 하네.[帝子降兮此渚, 目眇眇兮愁予]”라고 하였다.

二妃는 舜임금의 두 비인 娥皇·女英을 말하는데, 순임금이 남쪽으로 巡狩하여 蒼梧의 들에서 崩御하자 두 비가 瀟湘江가에 이르러 피눈물을 대에 뿌리며 모두 소상강에 빠져 자살하였다. 이 때문에 소상강변의 대나무 앞에는 붉은 반죽의 얼룩무늬가 있게 되었다는 瀟湘斑竹의 고사를 상상했다. 이 고사는 『楚辭』 『九歌』에 인용된 것이다. 서애는 이 고사를 바탕으로 이 시를 지었다. 서애의 『楚辭』에 대한 독서는 깊었으며 거의 『楚辭』 전편에 미치고 있다.

초나라 산은 높고 울창하고  
상수는 맑고도 유유하도다  
홀로 깨어 또 괴로움을 알았으리  
나의 마음 자유롭기 어렵도다

楚山高鬱鬱  
湘水清悠悠  
獨醒亦知苦  
吾心難自由<sup>34)</sup>

34) 『西厓先生文集』卷1, 詩, 『擬古 十首』.

『楚辭』에 나타나는 초나라 山河, 특히 湘水는 세월은 가도 굴원의 고사와 함께 유유히 흐르고 있다. 서애의 ‘獨醒’이란 시어는 굴원의 『어부사』 ‘舉世皆濁 我獨清 衆人皆醉 我獨醒’을 함축시키며 남들은 모두 술에 취해 있거늘 홀로 깨어서 고통을 겪는다고 굴원의 심사를 더듬는다. 그리고는 서애 자신도 깨어있는 사람으로 자유롭기가 어렵다고 시상을 엮어간다. 서애는 『楚辭』를 활용하여 시를 엮어가는 미의식이 남달라 보인다. 서애의 시 곳곳에는 『楚辭』로 만들어진 시어들이 앙금처럼 녹아서 미를 발휘하고 있다.

서애의 『擬古十首』 중

.....  
 한해가 저물어 감에 벽라의를 입고  
 서늘한 바람이 정히 급하다  
 회사의 뜻이 아직 그치지 않으니  
 구름타고 창합을 두드린다

.....  
 歲暮薜蘿衣  
 涼風吹正急  
 懷沙意未已  
 乘雲叩閭闔<sup>35)</sup>

이 시구도 『楚辭』를 바탕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 시에 나오는 ‘薜蘿衣’는 『楚辭』 『九歌-山鬼』의 “벽려로 옷을 해 입고 여라의 띠를 둘렀도다. [被薜荔兮帶女蘿]”라는 구절에서 취한 것이다. ‘懷沙’라는 시어는 『楚辭』 『九章-懷沙』에서 따온 것이다. 『懷沙』는 楚나라 屈原이 한을 품고 汨羅水에 몸을 던져 죽을 때에 지었다는 『楚辭』이다. 『懷沙』는 강바닥의 모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을 안고 먹라수에 투신하였다고 한다. 서애는 ‘그 투신하던 마음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표현하여 의미심장한 시어로 긴장감을 갖게 한다. 서애는 굴원의 투신할 때의 정신을 이어서 그 고결하고 청렴결백한 선비정신의 뜻을 다시 펼치고자 하였다.

35) 『西厓先生文集』卷1, 詩, 『擬古十首』.

‘구름타고 창합을 두드린다.’는 시구의 ‘閭闔’은 九天 즉, 九重天의 약칭이니 九重天門은 ‘宮殿을 열어 놓았다.’는 뜻이다. 이 시구도 『楚辭』 「天問」과 「遠遊」의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정취를 느끼게 한다.

서애는 땅이름도 『楚辭』에서 취하여 고오한 향취를 풍기게 하는 미의 식이 있었다.

사해는 빙빙 돌아 한 국자에 모이고	四海溟溟一勺多
우측으로 부상을 떨치고 좌측에는 약목이라	右拂扶桑左若木 <sup>36)</sup>

이 시구의 ‘扶桑’과 ‘若木’은 다음과 같은 굴원은 『離騷』에서 취한 것이다.

함지에서 내 말 물 먹이고	飲余馬於咸池兮
부상에 말고삐 묶는다	總余轡乎扶桑
약목을 꺾어 해를 거스르고	折若木以拂日兮
편안히 거닐고 배회하네	聊逍遙以相羊

서애는 『離騷』의 이 시구에서 취해서 ‘扶桑’을 해 뜨는 곳으로, ‘若木’을 해 지는 곳으로, 시어를 다듬어 표현했다. 『楚辭』의 ‘扶桑’과 ‘若木’은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용어이다. 이 시어들은 우리의 지명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경북 김천의 扶桑과 왜관의 若木이 그것이다. 우리 문화에 『楚辭』의 시어가 점철되어 있다는 것은 『楚辭』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서애는 유성룡이 파직되어 내려오던 때 이순신의 부음을 듣고 애도하며 지은 시에서

36) 『西厓先生文集』 卷2, 詩, 「弄丸歌」.

고래들 모두 죽여 피바다를 만들었고  
맹렬한 불길은 풍이의 굴을 다 태웠네

鯨鯢戮盡血殷波  
烈火燒竭馮夷窟<sup>37)</sup>

라고 읊었다. 이것은 『楚辭』 「遠遊」의 “상수의 영령으로 하여금 비파를 타게 함이여, 해약으로 하여금 풍이를 춤추게 하도다.[使湘靈鼓瑟兮, 令海若舞馮夷]”라고 한 구절에서 點化되었다. 서애의 한시 곳곳에는 『楚辭』에서 적출한 시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서애의 「反遠遊」는 『楚辭』 수용의 문제작이자 압권이다. 揚雄은 「反離騷」를 지었다. 굴원의 문장이 사마상여보다 우수했는데,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여 「離騷」를 짓고 스스로 강물에 투신해 죽은 것을 양웅은 괴상히 여기고 그 「離騷」의 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그는 때를 만나면 잘 되고 때를 만나지 못하면 못 된다고 하면서 글을 짓되 이따금 「離騷」의 글을 인용하여 반대로 써서 岷山으로부터 강물에 던져 굴원을 조문하고 그 글을 「反離騷」라 이름 하였다고 한다.(『漢書』 「揚雄傳」) 이후 『楚辭』의 편명 앞에 ‘反’을 붙인 작품들이 나타난다. 서애 역시 이와 같은 정서로 「反遠遊」를 지었다. 굴원은 「遠遊」를 지어 답답한 심정을 풀려고 하늘에 솟아올라 멀리까지 노닐며 그의 울분을 풀려고 하였다. 굴원의 『楚辭』 작품 「遠遊」는 하늘을 무대로 遠遊한 것을 옮겨 놓은 것이다. 이것은 「辭賦」 형식의 원류이다. 서애는 『楚辭』 「遠遊」를 바탕으로 「反遠遊」를 「辭賦」의 형식으로 지었다.

서애의 『楚辭』 수용을 고찰하면서 얻은 최대의 수확은 「反遠遊」라는 작품의 발견이다. 서애는 굴원의 「遠遊」를 읽고 그 시대와 그 상상이 자기 시대의 지식과 거리감이 있는 것을 느끼고 자기의 지식으로 다시 쓰고 싶었다. 그리고 굴원이 우주를 초월하는 「遠遊」의 형식을 애호하여 辭賦의 형식으로 창작하면서 「遠遊」의 규모와 자유로운 상상력에 반기를 들고 그

37) 『西厓先生文集』 卷2, 詩, 「哀李統制」.

형식을 뛰어 넘어 「反遠遊」를 지었다. 서에는 「遠遊」 바탕으로 상상력을 펼치며 자유롭게 서술하고 있다. 「反遠遊」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을 오르는 것은 높은 것을 싫어하지 않고	登山不厭高
강에 임하는 것은 깊은 것을 싫어하지 않네	臨水不厭深
동자의 관찰을 족히 아노니	足知童子觀
장부의 마음에는 맞지 않도다	不稱丈夫心
공자는 대신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겼고	仲尼登岱小天下
노경에는 또 바다에 떠 다니고 싶다고 했네	晚歲又欲浮于海
나 또한 일찍이 博望侯 張騫를 따라서	我亦嘗從博望侯
곤륜산 하늘 밖으로 한 번 나가고 싶었노라	一望崑崙出天外
곤륜산의 높이는 2500리	崑崙之高二千五百里
해와 달을 가려서 밝기가 어렵네	日月蔽虧難爲明
굽어보면 황하가 가늘기가 실과 같고	俯視黃河細如絲
만국의 산은 풀더미 같아 겨우 푸르려 보이네	萬國積蘇纔辨青
도를 듣는 신선의 무리가 그 가운데 처하고	聞道羣仙處其中
무지개 둥근 기둥 어찌 그리 펼 펼한가?	霓旌羽蓋何翩翩
나도 무지개 따라 마음껏 놀고 싶으니	我欲從之不憚遠
구름사다리 바위 잔도를 끌어 잡을 수 있도다	雲梯石棧可攀緣
단지 서왕모를 한하노라	只恨西王母
해가 요지를 향할 때 마음껏 즐긴 것을	日向瑤池恣淫樂
蟲沙猿鶴 변하는 도술 다시 묻지 않으리니	蟲沙猿鶴不復問
산 아래 많은 사람 황죽가를 노래하네	山下萬人歌黃竹
사당의 어린 자식 약하여도 영리하여	東廂小兒細而黠
선도를 훔쳐 먹고 법을 행하지 않으니	偷食仙桃不行法
오호라, 진실로 아름다움은 구하는 것이 아니로다	嗚呼信美非所求
수레를 돌리니 해는 저문데 갈 곳이 없네	回車日暮靡所適
푸른 소를 탄 노자는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고	靑牛道人去不還
관문에 자기가 없는 것을 탄식하노라	歎息關門紫氣歎
학가산 아래로 돌아오만 못하니	不如還歸鶴駕下

이 산은 작더라도 오히려 깃들어 살 만하고	此山雖小猶棲息
운천 한 골짜기는 몸을 숨길 만하니	雲泉一壑可藏身
정신이 세상 끝까지 노니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不妨神遊窮八極 <sup>38)</sup>

굴원의 『楚辭』 「遠遊」는 서애의 「反遠遊」로 換骨奪胎 되었다. 서애는 『楚辭』 「遠遊」에 나타나는 하늘의 묘사 속에 어린아이의 눈 같은 소박미가 있음을 감지하고, 장부의 시각에는 맞지 않다고 반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서애는 유학자답게 굴원 시대에는 희박했던 공자의 유교사상을 피력하며 공자도 岱山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겼고 말년에는 바다에 떠 다니고 싶다고도 했다는 것을 떠올리고, 굴원의 「遠遊」의 뜻과 일치함을 드러내었다. 서애는 자신도 명나라에 사신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遠遊」를 의식하며 마음껏 노닐고 싶었다. 서애는 한나라 博望侯 張騫이 한 무제의 명을 받고 大夏에 사신으로 나가서 황하의 근원을 찾을 적에 뗏목을 타고 달포를 지나 운한 즉, 은하수 위로 올라가서 견우와 직녀를 만나고 왔다는 전설(『天中記』 卷2)을 떠올리며 굴원의 「遠遊」를 되살리고 있다. 서애는 굴원 이후에 생겨난 이 전설을 드러내어 「遠遊」를 다시 쓰고 있다. ‘積蘇’란 ‘쌓아 둔 마른 풀’이란 말로, 곤륜산 높은 데 올라 중국의 본토를 굽어보는 산이 그와 같다는 말이다. 『열자』 「周穆王」에 “그 궁궐과 정자가 흙더미와 땀감용 풀더미 같았다.[其宮榭若累塊積蘇焉]”라고 하였다. 서애는 곤륜산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본토를 俯瞰法으로 상상하고 있다.

서애는 「反遠遊」 작품에 西王母를 끌어들인다. 周 穆王이 정사는 돌보지 않은 채 八駿馬가 모는 수레를 타고 천하를 두루 유람하다가 곤륜산 꼭대기의 瑤池에 가서 전설적인 선녀 西王母를 만나 환대를 극진히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列子』 「周穆王」.) 또 서애는 ‘蟲沙猿鶴’의 시어를

38) 『西厓先生文集』 卷1, 詩, 「反遠遊」.

끌어들여서 葛洪 『抱朴子』의 “옛날 周나라 穆王이 南征할 때 一軍이 모두 변화하여 장수들은 원숭이 또는 학이 되고, 병졸들은 벌레 또는 모래가 되었다.”라고 한 고사를 넣기도 하였다. 서애는 박식한 시인이었다. 그는 중국의 서적들을 많이 탐독하였다. 그 박식을 바탕으로 창작된 시들은 그 결이 다르며 그 미의 깊이가 다르다. 서애의 시는 시어의 폭이 넓고 깊다고 할 수 있겠다.

서애는 자유롭게 『楚辭』 『遠遊』의 경지를 넘어서 『황죽가』를 상상한다. 周 穆王 姬滿이 눈 속에서 『黃竹歌』를 지어 불렀다고 한다. 목왕이 일찍이 黃圻의 萃澤에서 사냥할 때 날씨가 몹시 춥고 雨雪이 퍼부어 얼어 죽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黃竹』이라는 애절한 노래를 불렀는데, 후대에는 이를 인하여 황죽을 詠雪을 뜻하는 말로 썼다.

서애는 『函谷關의 關令 尹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 오는 紫氣를 보고 성인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과연 老子가 靑牛를 타고 왔다.’는 전설을 활용하였다.(『列仙傳 上』, 『關令內傳』) 서애의 『反遠遊』는 중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전고의 박식함으로 이루어졌다. 또 서애는 『反遠遊』를 자기 시대의 문제로 끌고 와서 자유롭게 서술하고 있다. 그는 『楚辭』 『遠遊』의 정서를 자기의 고향으로 끌고 온다. 서애는 『楚辭』 『遠遊』의 작품의 경계를 허물고 과감하게 자기의 『楚辭』 『反遠遊』를 쓰고 있다. 다음의 시구는 『楚辭』 『遠遊』편을 직접 지목하여 지은 것이다.

술이 찌그러지고 화로가 차서 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鼎缺爐寒不成丹  
한 편의 『楚辭』 『遠遊』는 부질없는 헛된 말이다 一篇遠遊徒虛語<sup>39)</sup>

서애는 『楚辭』 『遠遊』를 수용하고 심화하여 그 내용을 불만에 찬 어조로 비평을 하고 있다. 서애는 『反遠遊』를 지어서 『楚辭』 『遠遊』의 정서를

39) 『西厓先生文集』 卷1, 詩, 「七月五日 風氣颯然 與子姪數輩 遊北林佛塔……」.

더욱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창작하고 함축하여 작품화 하였다.

서애의 다음과 같은 시구에서는 『楚辭』의 정서가 듬뿍 배어난다.

낙낙장송 만 그루가 강 구비를 두르고	長松萬株遶江曲
벽라닐쿨 천 길이 교룡을 춤추게 한다	碧蘿千丈蛟龍舞 <sup>40)</sup>

이 시구 속에 ‘碧蘿’·‘蛟龍’ 등의 소재가 이국적 경향을 띠며 『楚辭』의 의경 안으로 들어온다. 서애의 아래 시구는 『楚辭』 수용의 미의식이 돋보이며 그 오묘한 향기가 물씬 풍겨난다.

부용과 벽려로 옷을 지을 수 있으니	芙蓉薜荔可爲衣
녹색이 쇠하고 비가 내리니 푸른 부들은 그대로다	綠蓑備雨仍青蕝
인간은 무슨 일로 일 없음을 이길 수 있을까	人間何事勝無事
한 구비 창강의 물결은 밝은 달을 희롱하네	一曲滄波弄明月 <sup>41)</sup>

서애는 이 시의 밑에

朴承任 선생의 시에 이르기를

무슨 일로 일 없음을 이길까	何事勝無事
비개인 구름은 골짜기에 있다네	晴雲在谷中
급하게 먼지 땅의 자취를 수습하니	急收塵土跡
돌아가 옛 산의 모습을 대하리라	歸對故山容

라고 하였다. 내가 일찍이 이 시어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하였

40) 『西厓先生文集』卷1, 詩, 「七月五日 風氣颯然 與子姪數輩 遊北林佛塔……」.

41) 『西厓集, 西厓先生別集』卷1, 詩, 「自慰」.

다.<sup>42)</sup>

라고 기록하고 있다. 薜荔는 줄사철나무라 하며 담쟁이를 말한다. 굴원의 『楚辭』 『離騷』의 “마름과 연꽃으로 옷을 만들고, 부용을 모아 치마로 해야지.[製芰荷以爲衣兮, 集芙蓉以爲裳]”라는 구에서 환골탈태한 것이다. 『楚辭』 『九歌-雲中君』에도 “물속에서 담쟁이를 캐이며, 나무 끝에서 연꽃을 따네.[采薜荔兮水中, 搴芙蓉兮木末]”라는 시구와 또 『離騷』의 “나무 뿌리로 백지 엮음이며, 담쟁이의 떨어진 열매 꿰네.[木根以結薜荔兮, 貫薜荔之落蕊]”라는 시구에서 시어를 다듬었다. 이 시에서도 『楚辭』의 시어를 점화하여 시로써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에는 자주 『楚辭』의 향기로운 난초들을 시에 활용하고 있다.

못 꽃들은 이미 황폐해 가는데  
쇠잔한 향취를 누가 다시 아끼리

衆芳已蕪穢  
殘香誰復惜<sup>43)</sup>

이 시구에서 ‘衆芳’과 ‘蕪穢’이란 시어는 굴원 『離騷』의 “비록 시들어 죽어도 역시 상심하지 않으나, 못 향초가 황폐해 더러워짐을 슬퍼할 뿐.[雖萎絕其亦何傷兮, 哀衆芳之蕪穢]”이라고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이 시어들 역시 시 속에서 屈伸작용을 하면서 미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衆芳’이라는 『離騷』의 시어 때문에 이 시에서 드러내려는 貞操가 더욱 드러나 보인다. 서에는 『楚辭』의 시어를 사용하여 시의 맛을 더욱 돋우어 살려내는 미의식이 있었다.

서애의 다음 시구는 『楚辭』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시어의 자연스러움은 오히려 『초사』를 능가한다.

42) 『西厓先生別集』 卷1, 詩, 『自慰』. “朴嘯臯先生詩云 …… 余嘗愛其語 故用之.”

43) 『西厓先生文集』 卷1, 詩, 『九日登高』.

기러기 때 수 없이 빈 못을 날고	鴈陣無數飛空潭
상수 언덕 푸른 단풍 하늘에서 서리 내리네	湘岸青楓天雨霜 <sup>44)</sup>

이 시에서도 ‘湘岸青楓’은 『楚辭』에서 다듬어진 것이다.  
 ‘湘岸青楓’이라는 시어는 퇴계의 시 『嶺南樓』에서도 보인다.

구름은 상수 언덕 푸른 단풍 밖에 걷히고	雲收湘岸青楓外
물 다한 형양 강변에 흰 기러기 내려앉네	水落衡陽白雁邊 <sup>45)</sup>

‘湘岸青楓’ 이 시구는 『楚辭』 『招魂』의 마지막 부분

넘실대는 강물위에 단풍나무 우거지니	湛湛江水兮上有楓
눈 가는 천리 끝까지 춘심을 아프게 한다	目極千里兮傷春心
혼이여 돌아오라 강남이 슬픔에 빠져있다	魂兮歸來哀江南

라고 한 것에서 따온 것이다.

서에는 다음 시구에서 『楚辭』에서 적출한 ‘寥沆’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쇠 피리 속에 가을 생각이 있으니	鐵笛聲中有秋思
초나라 하늘이 확 트이고 달이 둥글고 높네	楚天寥沆月輪高 <sup>46)</sup>

이 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寥沆’은 『楚辭』 『九辯』의 “맑게 탁 트임이여, 하늘은 높고 기운은 맑네[沆寥兮天高而氣清]”에서 따왔다. 王逸의 주에 맑게 탁 트인 공간을 말한다고 했다. 유도원은 ‘沆寥’를 曠蕩空虛의 의미

44) 『西厓先生別集』 卷1, 詩, 『書山人思瓊詩卷』.

45)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1, 詩, 『嶺南樓』.

46)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1, 詩, 『臥病江村聞笛』.

로 고증하고 있다.<sup>47)</sup> 시어는 짧으나 그 정감은 돈독하며 깊은 맛을 자아낸다.

서애는 이 시어를 『楚辭』에서 琢句하여 만들었다. 서애의 시에서 나타나는 『楚辭』의 전고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인용하고 있는 『楚辭』의 범위는 『楚辭』 25편 전편에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서애는 『楚辭』에 대해 정통하였으며 꼼꼼히 읽었다. 시에 단지 『楚辭』의 시어 하나가 묘하게 작용하였을 뿐인데도 시의 맛을 더욱 새롭게 만들어 낸다. 서애는 『楚辭』의 언어를 시어로 만드는 미술사였다. 서애의 시에 『楚辭』의 영향을 제거한다면 그 미감과 시어의 양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서애의 시에 『楚辭』가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서애의 『楚辭』 수용의 미의식과 문학적 경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 4. 결론

이상으로 서애의 시문에 나타나는 『楚辭』 수용의 미의식을 고찰해 보았다. 서애는 『楚辭』를 보았을까? 이 논문에서는 서애가 『楚辭』를 보았다는 것을 다량 발견할 수 있었다. 서애의 『楚辭』 수용은 날카로웠으며 『楚辭』를 깊이 있게 인용하며 심도있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楚辭』는 한시를 비평하는 데 있어 『詩經』과 함께 중요한 시학적 관점을 점유한다. 따라서 시인의 『楚辭』 수용은 그 시 비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애는 『楚辭』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서애가 『楚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며 서애의 문학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

47) 柳道遠, 『退溪先生文集攷證』 卷1, 第一卷詩, 『和陶集飲酒』, 沈寥 (『楚辭』) 沈寥兮天高而氣清. 註. 沈寥曠蕩空虛也.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서애는 800여수가 넘는 시를 남기고 있으며 그 시의 분량에 비해 『楚辭』가 수용된 시가 많은 편은 아니나 그 인용된 시들을 볼 때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퇴계학파의 『楚辭』 연구는 우리 문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서애의 『楚辭』 수용 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연구라고 판단한다.

서애는 퇴계의 제자로서 주희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학자 겸 관료였다. 서애를 비롯한 퇴계학파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주희를 사모하였다. 주희의 『楚辭集註』는 서애를 비롯한 퇴계학파의 유가들이 『楚辭』를 접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

퇴계학파에게 『離騷』를 비롯한 『楚辭』는 경전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많이 읽혔다. 그들의 한시 곳곳에는 『楚辭』를 수용한 흔적이 발견된다. 그리고 굴원의 개결하고 정의로운 삶과 충성의 이미지는 우리 조선의 선비정신으로 승화되고 있었다. 이 시기 굴원의 『어부사』를 비롯한 『楚辭』의 수용은 다분히 주자학의 영향 하에 유교적으로 수용되고 비판되었다.

서애는 『楚辭』에 대해 정통하였으며 『離騷』를 비롯한 『楚辭』 전편을 꼼꼼히 읽고 시어 창작의 기저로 활용하였다. 서애는 『楚辭』에 대한 충분한 감상과 이해를 거쳐 『詩經』과 함께 문학적 전범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서애의 시문에는 『楚辭』 수용의 미의식이 충만해 있었다.

퇴계가 살았던 시대와 서애가 살았던 시대는 다르다. 서애는 특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참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축출과 회귀가 수 없이 반복되던 혼란의 시대를 거의 조정에서 살았다.

서애는 임진왜란 때 수 많은 공을 세우고도 참소를 입고 낙향해야만 했다. 서애에게 있어서 『楚辭』는 특별한 감동이 있었을 것이다. 서애가 살았던 시대는 『楚辭』의 수용이 무성하게 이루어진다. 서애는 굴원처럼 조정

에서 참소를 입고 물러나 하회의 강변을 거닐면서 자신을 굴원과 동일시 하며 『離騷』나 『어부사』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楚辭』는 이렇게 조선 중기 선비들에게 우국의 심정, 정정당당하고 양심적인 관료 정신, ‘怨而不亂’의 원망, 음유시인 굴원이 『楚辭』를 부르며 行吟澤畔하던 애국시인의 고결한 문학정신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서애는 이 정감의 세계를 유학적 형상사유 속으로 조율하고 있었다.

서애의 詩文에는 『楚辭』에서 점철된 향기로운 시어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어서 흥미롭다. 서애는 퇴계와는 또 다르게 『楚辭』의 시어를 수용하여 시의 맛을 살려내는 미의식을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의 16세기는 주자학이 팽배하던 시기로 강호가도와 산수시가로 자연미를 새롭게 발견해 가던 시기이다. 서애는 『楚辭』를 수용하면서 새롭게 강호의 자연미를 발견해 나갔다.

서애는 『楚辭』를 담금질하여 그의 시 속에 『楚辭』를 새롭게 탄생시켰으며 『楚辭』에 잠심사득하여 건져낸 시어의 가공을 통해 서애만의 독특한 예술적 풍격을 이루어내었다.

서애의 시가에는 『楚辭』에서 점철성금되고 환골탈태된 시어들이 그의 시 속에 앙금처럼 녹아서 그 미를 찬연히 밝히고 있다. 그동안 서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편이나 『楚辭』에 대한 담론은 너무 없었다. 한국의 한시를 비롯한 고전시가에는 『楚辭』의 수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애의 시문에서 『楚辭』의 영향을 제거한다면 시어의 양은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만약 한국에서 『楚辭』의 시어를 제거한다면 한국의 시는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한시비평의 분야에서 『楚辭』에 대한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柳道源, 『退溪先生文集攷證』.

柳成龍, 『西厓先生文集』.

劉勰, 『文心彫龍』.

李滉, 『退溪先生文集』.

『孟子』.

『史記』.

『楚辭』.

강성준, 「서애 유성룡의 시문학연구」,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2005.

금장태, 「서애 유성룡의 철학사상」, 『한국의 철학』 제23호,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1995.

김광순, 「서애 시평에 대한 일고찰」, 『동양문화연구』 제6집,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1979.

김시향, 「서애 유성룡 선생의 詩敎說 연구」, 『동방한문학』 제10집, 동방한문학회, 1994.

\_\_\_\_\_, 「서애 유성룡의 문학세계」, 『한국의 철학』 제23호,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1995.

김호중, 『서애 유성룡 연구』, 새누리, 1994.

申斗煥, 「西厓 柳成龍의 性理學과 文藝美學에 관한 談論」, 『한국한문학회』 40호, 한국한문학회, 2007.

\_\_\_\_\_, 「朝鮮士人들의 『楚辭』受容과 그 美意識」, 『한문학논집』 제30집, 근역한문학회, 2010.

조민경, 「서애 유성룡의 시문학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조정기, 「서애 유성룡의 국방정책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84.

투고일 2016. 10. 31 심사시작일 2016. 11. 21 심사완료일 2016. 12. 17

*Abstract*

A study o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Cho-sa(『楚辭』) mentioned in the *Seoae*(西厓), *Ryu Seong-ryong*(柳成龍)'s poetry

Shin, Doo-hwan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esthetics of **Cho-sa(『楚辭』) mentioned in the *Seoae*(西厓), *Ryu Seong-ryong*(柳成龍, 1542~1607)'s poetry.** The Cho-sa(『楚辭』) is a model of Literature of Chinese poetry. He was a great premier who got over suffering from Japanese invasion in 1592(壬辰倭亂) The Choseon(朝鮮) Dynasty period. He was left outstanding achievements in academic aspect as well as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 He is learn many things by imitation of Cho-sa(『楚辭』) and composed different form's poems by imitation of Cho-sa(『楚辭』). *Seoae*, *Ryu Seong-ryong*, were accommodated in the Neo-Confucianism position.

*Ryu Seong-ryong*'s poetry is full of tragic beauty by imitation of Cho-sa(『楚辭』). his poem is a distinctive romantic atmosphere by imitation of mentioned in Cho-sa(『楚辭』)' folklore, beautiful flowers and plants. *Ryu Seong-ryong* is much alike in character. he is get driven out from the party of a councilor to the king. The incident colored his entire life. They are smart, capable and supremely confident in the poem world of Cho-sa(『楚辭』). The 『Ban-weonyu(反遠遊)』 is the masterpiece of his elaborations the aesthetics of **Cho-sa(『楚辭』) mentioned in the *Ryu Seong-ryong*'s poetry.** The 『Ban-weonyu(反遠遊)』 is an adaptation from one of 'Ch'u Yuan(屈原)'s Cho-sa(『楚辭』) The 『Weonyu(遠遊)』.

*Ryu Seong-ryong*'s poem is the aesthetic consciousness in the 'Cho-sa(『楚辭』) since the creation of 'Ch'u Yuan(屈原)'. Their Chinese poetry is very beautiful. His poem have a fitting comparison and a symbol a deep meaning sacred verbal image. *Ryu Seong-ryong* is composed different form's poems by imitation of Cho-sa(『楚辭』).

*Ryu, Seong-ryong*'s poetry was the sediment like melting into Cho-sa(『楚

辭』) **brilliantly down the light.**

**Keyword** *Ryu, Seong-ryong* (柳成龍), *Cho-sa* (楚辭), *Ch' u Yuan* (屈原),  
Neo-Confucianism, Aesthetic consciousness.

